

2027
고2 문학
비상

2027 고2 문학 비상 | 1(2)(1) 빙그레의 영역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빙그레의 영역」에서는 작가의 변화된 인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선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제목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높은 비중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토대로 작가의 인식과 연결하여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라지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게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꽃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연필 같은 것. 남지 않는 것들. 그걸 영영 간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선물이라야 주고 받는 마음이 흥분했다. 사물에 사연이 쌓여 가서 추억이 사물보다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풍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시절의 나는 여렸던 것임이 틀림없다. 실은 선물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 나 자신의 여림에 대한 불만 쪽에 더 가까운 심사였을 것이다.

선물은 받는 게 더 좋다, 주는 게 더 좋다, 이 둘을 놓고 “너는 어느 쪽이니?” 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도무지 주는 게 더 좋다고 선택하는 멋진 이들에게 백 프로 공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말해 보고 싶다. 선물은 주거나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되는 것이라고. 선물이 되는 사건, 선물이 되는 시간, 선물이 되는 사람, 선물이 되는 말, 선물이 되는 표정. 선물이 되는 사람이 선물이 되는 말과 함께 선물이 되는 표정을 지으며, 자그마하고 사소한 선물 하나를 건넬 때, 그것은 선물이 되는 시간이자 선물이 되는 사건이다. 그때 손과 손 사이에서 전달되는 사물 하나는 그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다.

지금 내 방은 그러한 사소한 선물이었던 사물들의 소곤거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방에 담겨진 나는 그 소곤거림을 배경 음악처럼 등에 업고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그럴 때 나의 글쓰기는 어쩌면 대담 같은 것이고 어쩌면 약속 같은 것이고 어쩌면 즐거운 받아쓰기 같다.

베이징을 여행했던 선배가 “왕창 사 와서 다 주고 하나 남았어.”라며 건네준 마오쩌둥이 그려진 케이스, 몽골 여행을 다녀온 후배가 “갖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하던 게르 미니어처, “언니 목마 좋아하잖아.”라며 갖고 있던 소품을 선뜻 건네준 후배, 재활용 쇼핑백을 잘라서 엮은 항아리를 노숙인들의 벼룩 시장에서 샀다며, 한 시간이 넘게 나를 기다려 건네주고 간 친구, 이 용도를 알아맞혀 보라며 방긋 웃으며 친구가 건네준 부엉이 모양의 연필깎이, 받는 나보다 주는 그 사람이 더 오래 매만지며 즐거워했던, 오래전 생일 선물로 받았던 목재 오르골, 돌멩이 하나, 도토리 하나, 저금통 하나 …….

적어 내려가다 보니, 선물이 선물답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다. 선물을 건네면서 해준 한마디. 농담처럼 던졌든, 지나가듯 말했든, 진지하고 가열하게 자신의 안목을 침 튀기며 피력했던 간에, 선물을 쳐다볼 때마다 저절로 떠오른다. 그 한마디와 더불어 그 표정도.

그러면 나는 빙그레 웃고야 만다. 아마도 이 선물들이 내 방 창가 선반에 쫄쫄 놓여 있지 않았다면, 혼자 있는 내 방에서 빙그레 혼자서 웃고 있을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내가 이 사물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때의 그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며 자주 웃는다는 걸. 청소를 하며 먼지를 닦아 줄 때마다 옆의 사물에게 소개해 주듯 말을 건넌다는 걸. @빙그레 웃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라디오를 하나 골라야 한다. 이사한 친구에게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고 ‘라디오’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디오를 고르자니, 그 동네는 FM의 주파수가 쉽게 잡히는 동네일지 아닐지, 그 새로

운 집은 어떤 디자인의 라디오가 어울리는 공간일지, 하나부터 열까지 친구가 사는 환경에 대해 상상하게 되었다. 라디오를 고르다 보니 내가 선물로 받았던 라디오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내가 꼭 갖고 싶어 하던 그 모델을 몇 년 동안 별려서 기어이 선물로 내밀었던 친구. 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지내 온 시간들. 라디오가 낡아 가는 만큼 우리가 깊이 친해지고 있다는 게 새삼스럽다. 이 낡아 가는 라디오의 안부를 오늘은 친구에게 전해 주어야겠다. 인증 사진을 찍어서 그때를 함께 새삼스레 떠올려 보고 싶어서. 친구는 친구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내가 있는 이 방에서. 우리가 동시에 함께 떠올릴 사연과 감정이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 김소연, 「빙그레의 영역」

1.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작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②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을 종합하여 공동체적 삶에서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상의 상황을 전제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며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 ⑤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삶에 투영하여 과거의 미성숙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2.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통념에서 벗어난 정의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선물들의 목록과 그에 얽힌 사례를 열거하여 내용의 구체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대답’, ‘약속’, ‘받아쓰기’와 같은 비유를 병렬적으로 활용하여 글쓰기가 지닌 복합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선물을 대하는 과거와 현재의 태도를 선명하게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 ⑤ 과거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제시하며,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3. 이 글의 내용을 통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는 과거에 추억이 축적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감성적으로 여린 면이 있었다.
- ② 작가는 현재 사물 자체의 물질적 가치보다 그것이 매개하는 관계와 시간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 ③ 작가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넉넉한 마음 덕분에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④ 작가는 친구에게 선물할 라디오를 고르면서, 과거에 자신이 라디오를 선물 받았던 기억을 상기한다.
- ⑤ 작가는 선물을 건네는 순간의 말과 표정이 평범한 사물을 특별한 선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4. 이 글을 읽고 <보기>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이 글의 제목은 ‘빙그레의 영역’입니다. 이 제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 ①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추억이 담긴 사물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 ②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온전히 혼자만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고독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 ③ 선물에 얽힌 추억이 보관된 물리적 공간과 그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내면적 시간을 통합적으로 상징합니다.
- ④ 주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받는 기쁨에만 집중했던 작가 자신의 미성숙했던 과거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 ⑤ 사소한 사물들을 관찰하며 글감을 얻고 글을 쓰는 작가로서의 직업적 공간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5. 윗글의 글쓰기가 동의할 만한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물은 주는 사람의 진심을 보여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② 선물은 물건의 값어치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기억 속에 남는다.
- ③ 선물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 ④ 선물의 가치는 그것을 주고받는 순간도 포함된다.
- ⑤ 선물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비판적 태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6. 다음 중, 글쓰기가 생각하는 ‘선물이 되는 시간’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할머니께서 내 손을 잡고 용돈을 쥐여 주시며 “우리 강아지, 맛있는 거 사 먹어.”라고 말씀하시던 순간
- ② 작년에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머그컵을 볼 때마다 “네 생각 나서 샀어.”라던 친구의 말이 떠올라 미소 짓는 시간
- ③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 쿠폰을 적용하여 평소 갖고 싶던 고가의 가방을 저렴하게 구매했을 때의 기쁨
- ④ 여행지에서 동생이 “언니랑 잘 어울릴 것 같아.”라며 조약돌 하나를 건네준 순간
- ⑤ 낡은 만년필을 닦으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글 쓰는 사람이 되어라.”라며 졸업 선물로 주셨던 순간을 회상하며 추억에 젖는 시간

7.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며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중의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까 저렇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썼던 것이라서 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재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 ① 윗글과 달리, <보기>는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정치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
- ② 윗글과 달리, <보기>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보기>와 달리, 윗글은 경험의 내용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정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④ 윗글과 <보기>는 모두 구체적인 일상의 경험을 제시한 후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이끌어 내는 구조를 보인다.
- ⑤ 윗글과 <보기>는 모두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8. 윗글의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물질적 가치를 정신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시간이다.
- ②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의미 있는 경험이 현재화되는 시간이다.
- ③ 과거의 특정 순간을 객관적으로 회상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다.
- ④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 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현재의 삶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다.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라지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게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꽃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연필 같은 것. 남지 않는 것들. 그걸 영영 간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선물이라야 주고받는 마음이 흥분했다. 사물에 사연이 쌓여 가서 추억이 사물보다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풍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시절의 나는 여렸던 것임이 틀림없다. 실은 선물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여림에 대한 불만 쪽에 더 가까운 심사였을 것이다.

선물은 받는 게 더 좋다, 주는 게 더 좋다, 이 둘을 놓고 “너는 어느 쪽이니?” 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해 보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도무지 주는 게 더 좋다고 선택하는 멋진 이들에게 백프로 공감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말해 보고 싶다. 선물은 주거나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되는 것이라고. 선물이 되는 사건, 선물이 되는 시간, 선물이 되는 사람, 선물이 되는 말, 선물이 되는 표정. 선물이 되는 사람이 선물이 되는 말과 함께 선물이 되는 표정을 지으며, 자그마하고 사소한 선물 하나를 건넬 때, 그것은 선물이 되는 시간이자 선물이 되는 사건이다. 그때 손과 손 사이에서 전달되는 사물 하나는 그 무엇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지금 내 방은 그러한 사소한 선물이었던 사물들의 소곤거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방에 담겨진 나는 그 소곤거림을 배경 음악처럼 등에 업고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그럴 때 나의 글쓰기는 어쩌면 대담 같은 것이고 어쩌면 약속 같은 것이고 어쩌면 즐거운 받아쓰기 같다.

(나) 적어 내려가다 보니, ㉔선물이 선물답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다. 선물을 건네면서 해 준 한마디. 농담처럼 던졌든, 지나가듯 말했든, 진지하고 가열하게 자신의 안목을 침 튀기며 피력했든 간에, 선물을 쳐다볼 때마다 저절로 떠오른다. 그 한마디와 더불어 그 표정도.

그러면 나는 빙그레 웃고야 만다. 아마도 이 선물들이 내 방 창가 선반에 쪼르륵 놓여 있지 않았다면, 혼자 있는 내 방에서 빙그레 혼자서 웃고 있을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내가 이 사물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때의 그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며 자주 웃는다는 걸. 청소를 하며 먼지를 닦아 줄 때마다 옆의 사물에게 소개해 주듯 말을 건넨다는 걸. 빙그레 웃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 김소연, 「빙그레의 영역」

9.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작가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에는 선물에 얽힌 추억이 주는 정서적 무게감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 ② 현재는 선물의 물질적 형태보다 그것이 생성되는 관계적 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 ③ 과거에는 선물을 건네는 사람의 기쁨보다 받는 기쁨을 우선시했다.
- ④ 현재는 선물 받은 사물을 매개로 한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 또한 소중한 선물이라고 여긴다.
- ⑤ 과거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10. <보기>는 이 글의 제목인 '빙그레의 영역'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작가가 받은 선물을 보면서 선물을 준 사람의 말과 표정을 떠올리면서 시간이자 공간이다.

- ① 웃음을 지을 수 있는
- ② 타인과의 관계를 성찰해 보는
- ③ 자신의 미적 감각을 확인하는
- ④ 잊고 있던 과거의 잘못을 깨닫는
- ⑤ 미래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11. 이 글의 작가가 동의할 만한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사물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변치 않는 선물이 가장 이상적이다.
- ② 선물이란 본질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마음을 교환하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③ 선물에 얽힌 사연이 깊어질수록 부담감도 커지므로,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는 선물을 멀리해야 한다.
- ④ 선물은 특정 사물이 아니라, 사물을 매개로 한 관계와 기억이 현재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재현되는 사건이다.
- ⑤ 혼자만의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은 소중하지만, 그것은 선물 교환이라는 사회적 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12. 윗글의 글쓴이가 '사라지는 것'을 선물로 받기 좋아했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물이 지닌 물질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에서 미학적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 ② 선물에 담긴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③ 사물에 깃든 추억의 무게가 주는 정서적 부담감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④ 선물을 주는 행위보다 받는 행위가 더 큰 기쁨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⑤ 선물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물의 물질적 가치를 넘어, 그것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선물이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주고받는 시간과 사건, 그리고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경험임을 의미한다.
- ③ 선물을 주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선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 ④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만족도가 선물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 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선물을 통해,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4~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라지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게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꽃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연필 같은 것. 남지 않는 것들. 그걸 영영 간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선물이라야 주고 받는 마음이 훌가분했다. 사물에 사연이 쌓여 가서 추억이 사물보다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풍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시절의 나는 여렸던 것이 틀림없다. 실은 선물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 나 자신의 여림에 대한 불만 쪽에 더 가까운 심사였을 것이다.

선물은 받는 게 더 좋다, 주는 게 더 좋다, 이 둘을 놓고 “너는 어느 쪽이니?” 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해 보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도무지 주는 게 더 좋다고 선택하는 멋진 이들에게 백 프로 공감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말해 보고 싶다. ㉠선물은 주

거나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되는 것이라고. 선물이 되는 사건, 선물이 되는 시간, 선물이 되는 사람, 선물이 되는 말, 선물이 되는 표정. 선물이 되는 사람이 선물이 되는 말과 함께 선물이 되는 표정을 지으며, 자그마하고 사소한 선물 하나를 건넸을 때, 그것은 선물이 되는 시간이자 선물이 되는 사건이다. 그때 손과 손 사이에서 전달되는 사물 하나는 그 무엇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지금 내 방은 그러한 사소한 선물이었던 사물들의 소곤거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방에 담겨진 나는 그 소곤거림을 배경 음악처럼 등에 업고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그럴 때 나의 글쓰기는 어쩌면 대답 같은 것이고 어쩌면 약속 같은 것이고 어쩌면 즐거운 받아쓰기 같다.

㉡베이징을 여행했던 선배가 “왕창 사 와서 다 주고 하나 남았어.”라며 건네준 마오쩌둥이 그려진 케이스, 몽골 여행을 다녀온 후배가 “갖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하던 게르 미니어처, “언니 목마 좋아하잖아.”라며 갖고 있던 소품을 선뜻 건네준 후배, 재 활용 소퐁백을 잘라서 엮은 향아리를 노숙인들의 베품시장에서 샀다며, 한 시간이 넘게 나를 기다려 건네주고 간 친구, 이 용도를 알아맞혀 보라며 방긋 웃으며 친구가 건네준 부엉이 모양의 연필깎이, 받는 나보다 주는 그 사람이 더 오래 매만지며 즐거워했던, 오래전 생일 선물로 받았던 목재 오르골, 돌멩이 하나, 도토리 하나, 저금통 하나 …….

적어 내려가다 보니, 선물이 선물답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다. 선물을 건네면서 해준 한마디. 농담처럼 던졌든, 지나가듯 말했든, 진지하고 가열하게 자신의 안목을 침 튀기며 피력했든 간에, 선물을 쳐다볼 때마다 저절로 떠오른다. 그 한마디와 더불어 그 표정도.

그러면 나는 빙그레 웃고야 만다. 아마도 이 선물들이 내 방 창가 선반에 쪼르륵 놓여 있지 않았다면, 혼자 있는 내 방에서 빙그레 혼자서 웃고 있을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내가 이 사물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때의 그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며 자주 웃는다는 걸. 청소를 하며 먼지를 닦아 줄 때마다 옆의 사물에게 소개해 주듯 말을 건넨다는 걸. 빙그레 웃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라디오를 하나 골라야 한다. 이사한 친구에게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고 ‘라디오’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디오를 고르자니, 그 동네는 FM의 주파수가 쉽게 잡히는 동네일지 아닐지, 그 새로운 집은 어떤 디자인의 라디오가 어울리는 공간일지, 하나부터 열까지 친구가 사는 환경에 대해 상상하게 되었다. 라디오를 고르다 보니 내가 선물로 받았던 라디오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내가 꼭 갖고 싶어 하던 그 모델을 몇 년 동안 별려서 기어이 선물로 내밀었던 친구. 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지내 온 시간들, 라디오가 낡아가는 만큼 우리가 깊이 친해지고 있다는 게 새삼스럽다. 이 낡아 가는 라디오의 안부를 오늘은 친구에게 전해 주어야겠다. 인증 사진을 찍어서 그때를 함께 새삼스레 떠올려 보고 싶어서. 친구는 친구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내가 있는 이 방에서. 우리가 동시에 함께 떠올릴 사연과 감정이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 김소연, 「빙그레의 영역」

14. 이 글에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삶을 성찰하며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
- ② 일상적 소재인 ‘선물’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일반적인 의미를 수용하고, 이를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 ④ 객관적 관점에서 사물을 분석하여, 그것이 지닌 보편적인 가치를 탐구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제시하며 과거의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작가는 자신의 방에서 친구들에게 받았던 선물을 돌아보는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선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드러낸다.

- ① 시대의 변화나 가치관의 혼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작가 자신의 시선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이 종합되어 있지 않다.
- ④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므로 가상의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⑤ 타인의 경험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

2. 정답 ⑤

작가는 선배나 후배, 친구들이 선물을 주며 했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하지만 이 인용은 과거의 기억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뿐, 작가의 내적 갈등이나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① 선물은 '되는 것'이라는 새로운 정의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 ② 마오쩌둥 케이스, 게르 미니어처 등 구체적인 선물 사례를 나열하여 깨달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글쓰기의 의미를 대답, 약속, 받아쓰기 등 여러 가지에 빚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사라지는 선물을 좋아했던 과거와 선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은 현재를 비교하며 서술하고 있다.

3. 정답 ③

작가는 선물들을 보며 미소 짓는 이유를, 선물을 받았을 때의 말과 표정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행복의 이유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넉넉한 마음' 덕분이라는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① '추억이 사물보다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풍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시절의 나는 여렸던

것임이 틀림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② 선물이 되는 사건, 시간, 사람 등이 중요하며, 전달되는 사물은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했다.
- ④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⑤ '그 한마디와 더불어 그 표정도.'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4. 정답 ③

'빙그레의 영역'은 일차적으로 선물들이 놓여 있는 작가의 방 창가 선반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가리킨다. 더 나아가, 그 공간에서 선물에 얽힌 사연과 사람들을 떠올리며 '빙그레' 미소 짓는 행복한 내면적 시간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공간과 시간을 통합적으로 상징한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 ①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추억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추억하고 연결하는 공간이다.
- ④ '빙그레의 영역'은 선물의 의미를 깨달은 현재의 공간이므로 과거를 상징하지 않는다.
- ⑤ 글쓰기의 방이 글쓰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제목의 핵심 의미는 글쓰기보다는 추억과 행복의 감정이다.

5. 정답 ④

현재의 작가는 선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 가치가 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 표정 등과 함께 선물이 의미 있게 전달되는 데서 찾아진다고 본다.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선물을 주고받는 순간(특정 시간과 사건)도 포함한다는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 ①, ③ 일반적인 견해일 수 있으나, 제시된 내용에서 작가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순간'과 '과정'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 ② 선물이 하나의 이야기(추억)가 된다는 것은 맞지만 물건의 값어치보다는 이야기가 '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선물을 받는 상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6. 정답 ③

작가가 말하는 '선물이 되는 시간'의 핵심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의미 있는 경험이다. ③은

타인과의 교감이나 추억 없이, 오직 물질적 만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작가가 생각하는 '선물이 되는 시간'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①, ④ 선물이 되는 사람이 선물이 되는 말과 함께 선물이 되는 표정을 지으며 자그마하고 사소한 선물 하나를 건넬 때이므로 선물이 되는 시간에 해당한다.

②, ⑤ 자기 방에서 선물로 받은 사물을 보면서 선물을 주던 사람의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며 빙그레 웃는 시간이므로 선물이 되는 시간에 해당한다.

7. [정답] ⑤

윗글에서는 친구나 선후배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만,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 역시 자신의 경험에서 직접 깨달음을 얻고 있을 뿐,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다.

① 윗글은 개인적 차원의 깨달음에 머무는 반면, <보기>는 집수리의 경험을 몸의 수양과 나라의 정치로까지 확장한다.

② <보기>는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윗글은 '그들은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는 하지만,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③ 윗글의 핵심은 선물에 얽힌 타인과의 관계와 추억이지만, <보기>는 개인의 성찰이 중심이다.

④ 두 글 모두 '경험 → 깨달음'이라는 수필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다.

8. [정답] ②

㉠는 선물을 받은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미소 짓는 시간이다. 이는 선물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긍정적인 경험이 현재의 '나'에게 의미 있는 순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사물 자체보다는 관계적 경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물질적 가치를 정신적 가치로 승화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추억을 떠올리며 웃는 시간이므로 객관적 회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사회적 유대감이라는 거시적인 차원보다는 개인적인 관계와 추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⑤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9. [정답] ⑤

(가)에서 작가는 과거에 선물을 '주고받는 마음이 흥분'한 것을 선호했다고 말한다. 이는 선물에 얽힌 관계나 추억의 깊이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선물 교환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선물의 참된 의미에 대한 깨달음은 현재에 이르러서야 나타난다.

① '추억이 사물보다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풍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시절의 나는 어려웠 것'이라는 구절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② '선물은 ~ 되는 것이라고.'와 '전달되는 사물 하나는 그 무엇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주는 게 더 좋다고 선택하는 멋진 이들에게 백프로 공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④ '빙그레 웃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10. [정답] ①

(나)의 내용으로 보아 '빙그레의 영역'은 작가가 작가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보면서 선물을 준 사람의 말과 표정을 떠올리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자 시간을 의미함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관계를 성찰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추억을 회상하는 것에 가깝다.

③ 미적 감각보다는 사람과 관계에 대한 추억이 중심이다.

④ 과거의 잘못이 아닌,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는 공간이다.

⑤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이다.

11. [정답] ④

작가는 선물을 단순히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한다. 이는 선물이란 특정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을 매개로 한 사람의 말과 표정 등이 현재의 '나'에게 빙그레 웃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되살아난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① 작가는 과거에 사라지는 선물을 더 좋아했고, 현

재는 사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② 작가는 선물을 단순한 교환 행위를 넘어 '되는 것'이라는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하고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③ 과거에는 부담을 느꼈지만, 현재는 그 사연과 추억을 소중히 여기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⑤ 작가는 '빙그레 웃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선물이 되었다'고 말하며, 추억의 시간을 선물과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2. 정답 ③

(가)의 '사물에 사연이 쌓여 가서 추억이 사물보다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풍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시절의 나는 여렸던 것임이 틀림없다.'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글쓴이는 사물에 깃든 기억의 무게가 주는 정서적 압박감, 즉 부담감을 감당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①, ②, ④, ⑤ 윗글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13. 정답 ②

글쓴이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를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 표정 등과 함께 선물이 의미 있게 전달되는 데서 선물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선물이란 사물을 넘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경험임을 의미한다.

① 선물의 상징적 의미보다는 주고받는 순간의 구체적인 요소(말, 표정, 시간)를 더 강조한다.

③ 주는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④ 받는 사람의 만족도보다는 주고받는 과정 자체의 의미를 더 중시한다.

⑤ 번치 않는 선물보다는, 선물이 건네지는 '시간'이나 '사건' 자체를 선물로 생각하게 되었다.

14. 정답 ②

작가는 '선물'이라는 일상적 소재와 관련된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과거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현재에는 '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① 미래의 삶을 계획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작가는 '선물은 되는 것'이라는 자신만의 개성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적 의미를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④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성찰을 서술하고 있으며, 객관적 분석과는 거리가 멀다.

⑤ 작가는 과거의 자신이 '여렸다'고 회상할 뿐, 가치관의 변화를 제시하며 과거의 자신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15. 정답 ②

작가는 마오쩌둥 케이스, 게르 미니어처, 목재 오르골 등 다양한 선물들을 나열하지만, 어떤 선물을 가장 오래 간직했는지에 대한 시간 순서나 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글에서 찾을 수 없다.

① 선물을 영영 간직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사물에 깃든 추억이 사물보다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풍경을 감당하기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③ 선물을 건네면서 해 준 한마디와 표정이다.

④ 선물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때의 그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며' 웃는다고 하였다.

⑤ 친구에게 줄 라디오를 고르며 'FM의 주파수'나 '새로운 집은 어떤 디자인의 라디오가 어울리는 공간일지' 등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16. 정답 ①

작가는 친구에게 줄 '라디오'를 고르다가, 자신이 과거에 선물 받았던 '라디오'를 다시 쳐다보게 된다. 이를 통해 선물해 준 친구와의 과거 추억을 현재로 불러오게 되므로, 추억 회상의 매개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작가는 라디오를 보기 이전에 이미 선물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③ 작가는 선물들의 가치에 우열을 두지 않으므로, 라디오가 가장 소중하다거나 다른 선물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미래의 관계에 대한 희망보다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능이 더 강하다.

⑤ 글쓰기에 영감을 주는 여러 소재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라디오의 핵심 기능은 아니다.